

한-베트남 FTA 체결 현황 및 주요 내용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심남섭 실장

목 차

1 한-베트남 FTA 체결 및 교역현황

2 한-베트남 투자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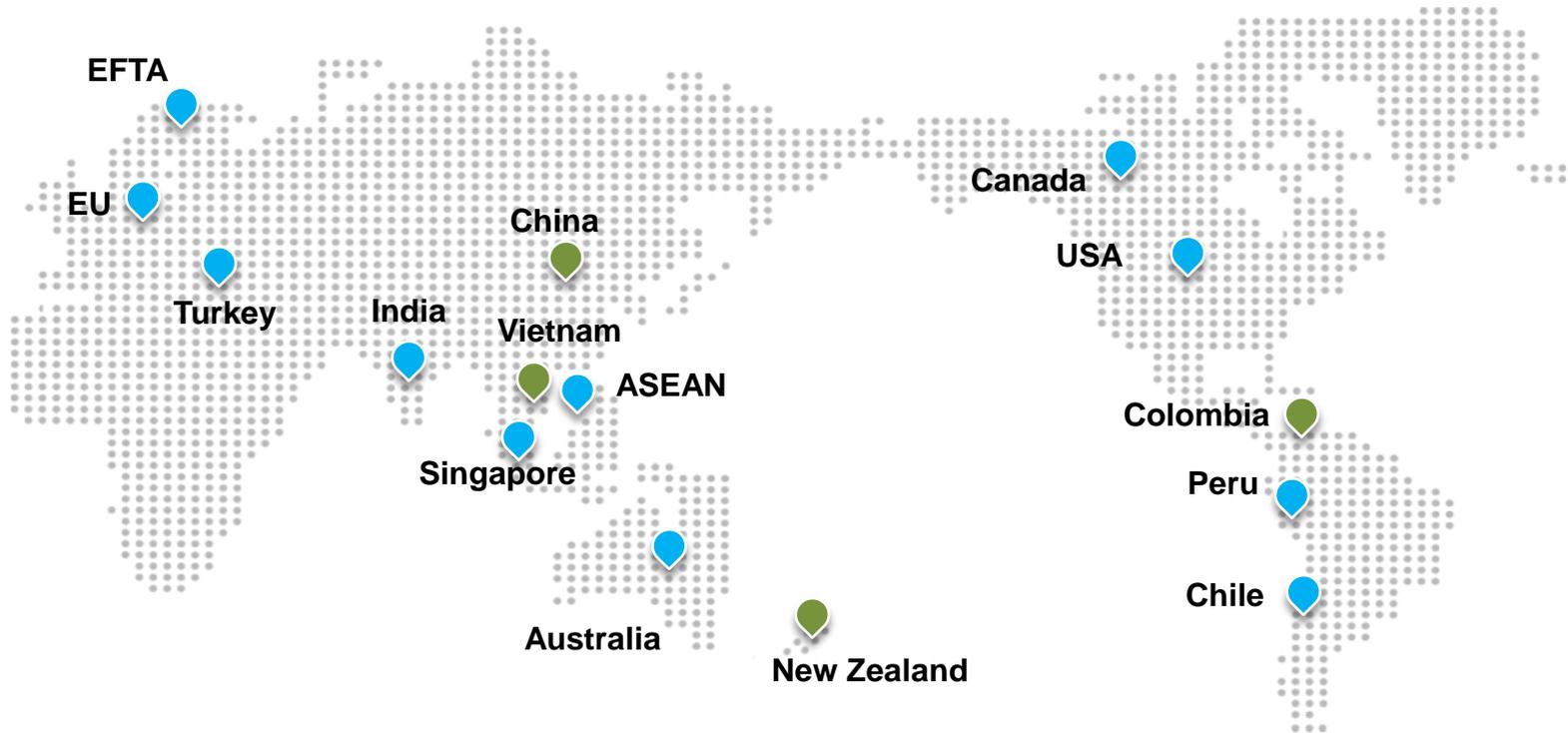
3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4 한-베트남 FTA 활용 수출입유망품목

5 한-베트남 FTA 원산지 규정 및 절차 개선

한국의 FTA 체결 현황

49개국과 11건의 FTA 발효(타결된 FTA 발효시 53개국, 15건)



발효

타결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

●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협상을 체결(발효 8건, 타결 2건)



발효

타결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

협상중 - 6건

- ▶ ASEAN-EU FTA
- ▶ ASEAN-Hong Kong, China FTA
-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 Trans-Pacific Partnership
- ▶ Viet Nam-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TA
- ▶ Viet Nam-European Union FTA

타 결 - 2건

- ▶ Korea-Viet Nam FTA (2015.5.5)
- ▶ Viet Nam-EAEU (2015.5.29)

발 효 - 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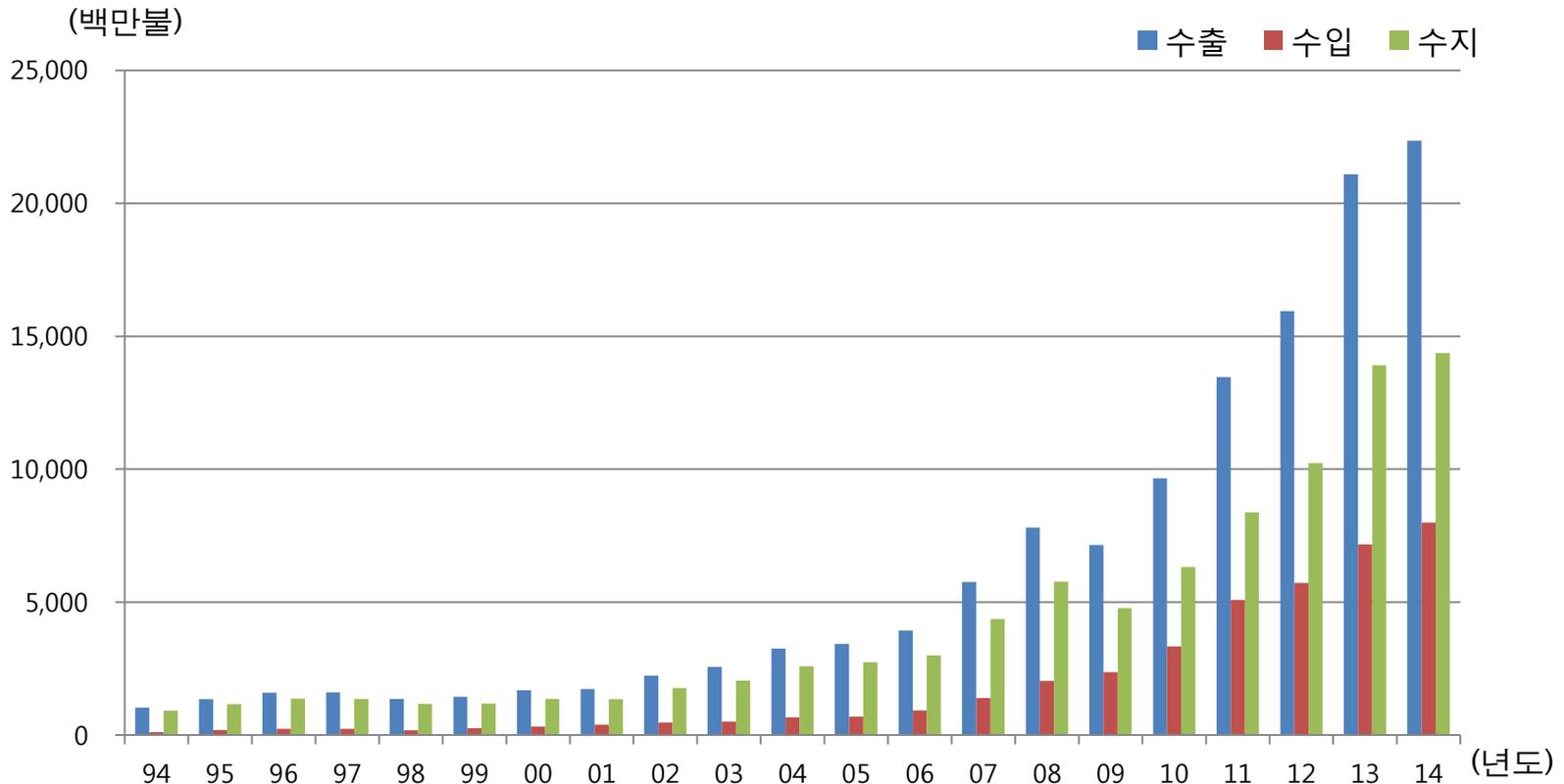
- ▶ ASEAN Free Trade Area (1993.1.1)
- ▶ ASEAN-People's Republic of Chin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2005.7.1)
- ▶ ASEAN-[Republic of] Kore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2007.6.1)
- ▶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2008.12.1)
- ▶ Japan-Viet Na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09.10.1)
- ▶ ASEAN-Australia and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2010.1.1)
- ▶ ASEAN-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2010.1.1)
- ▶ Chile-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2012.3.14)

한-베트남 교역현황

'94~'14년 한국의 對베트남 평균 수출 증가율은 18.9% / 평균 수입 증가율 25.5%

*평균 무역수지 증가율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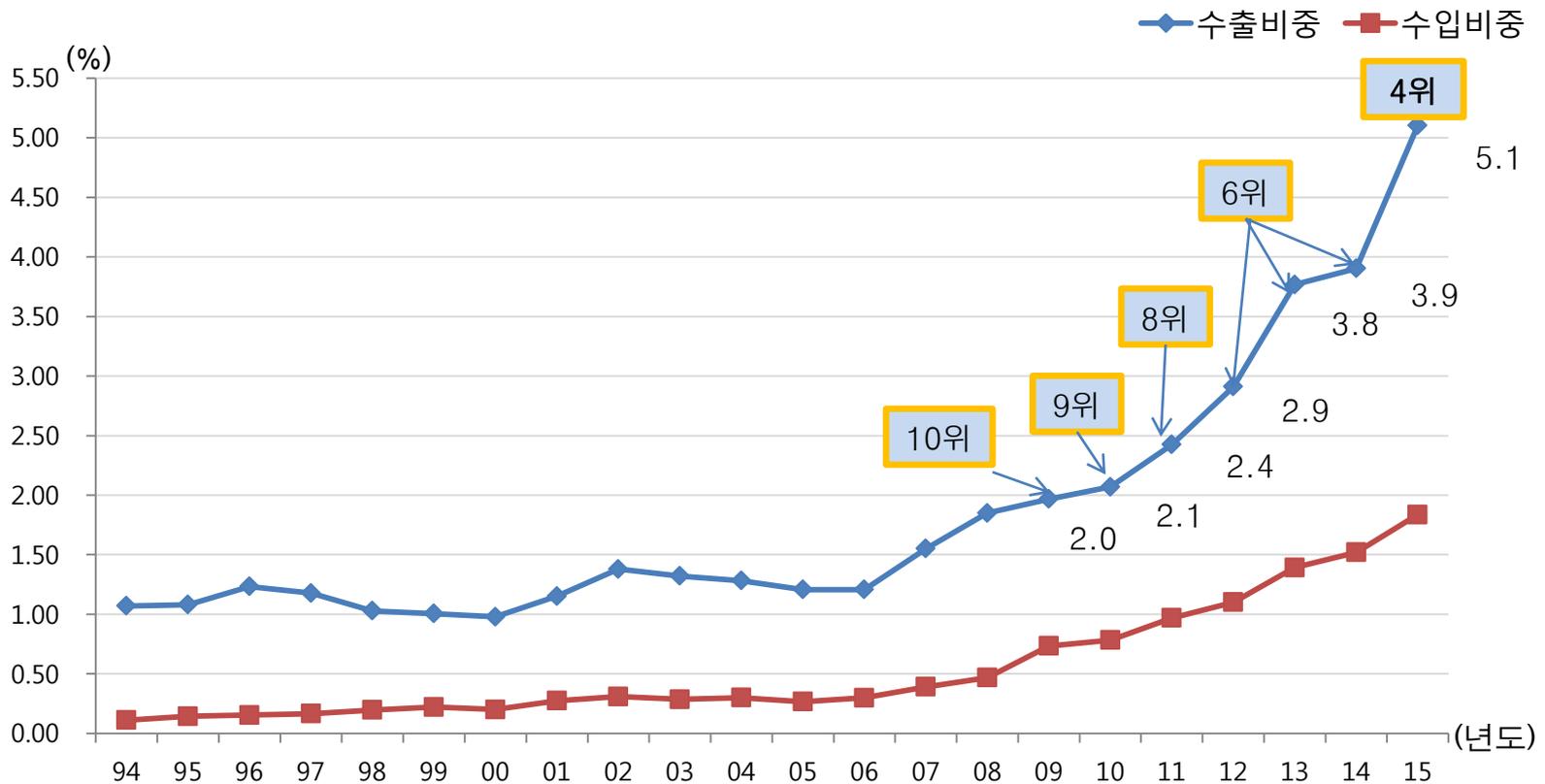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 추이]



한-베트남 교역현황

- 對베트남 수출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09년 첫 10위권 진입
- 15년도 6월까지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7.2% 증가, 제4위 수출국으로 도약
- * '15년 6월까지의 우리나라 對세계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수입비중]



한-베트남 교역현황

- 베트남의 한국 수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
-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의 베트남의 수출대상국이 됨

[베트남의 주요수출국 년도별 추이]

(비중 : %)

No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	비중										
1	미국	19.0	미국	20.0	미국	19.7	미국	17.5	미국	17.2	미국	18.1
2	일본	13.5	일본	11.1	중국	10.7	중국	12.0	일본	11.4	일본	10.3
3	중국	7.7	중국	9.5	일본	10.7	일본	11.5	중국	11.2	중국	10.0
4	호주	6.9	스위스	4.4	한국	4.3	한국	5.0	한국	4.9	한국	5.1
5	싱가포르	4.3	호주	4.2	호주	3.7	독일	3.5	말레이시아	3.9	말레이시아	3.8
6	독일	3.3	한국	3.6	스위스	3.7	말레이시아	2.9	독일	3.6	독일	3.6
7	말레이시아	3.2	싱가포르	3.6	독일	3.3	호주	2.7	홍콩	3.2	UAE	3.1
8	필리핀	2.9	독일	3.3	싱가포르	2.9	캄보디아	2.6	호주	2.8	홍콩	3.1
9	한국	2.9	말레이시아	3.1	말레이시아	2.9	영국	2.5	영국	2.7	영국	2.8
10	영국	2.5	필리핀	2.6	필리핀	2.4	인도네시아	2.4	캄보디아	2.6	호주	2.6

한-베트남 교역현황

- 베트남의 한국 수입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
-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중국에 이어 2위 수입대상국이 됨

[베트남의 주요수입국 년도별 추이]

(비중 : %)

No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19.8	중국	23.8	중국	23.8	중국	23.3	중국	25.5	중국	27.9
2	싱가포르	11.6	일본	10.7	한국	11.5	한국	12.3	한국	13.7	한국	15.7
3	대만	10.4	한국	10.0	일본	10.6	일본	9.7	일본	10.2	일본	8.8
4	일본	10.2	대만	8.9	대만	8.2	대만	8.0	대만	7.5	대만	7.1
5	한국	9.0	태국	6.5	태국	6.6	싱가포르	6.0	싱가포르	5.9	태국	4.8
6	태국	6.1	싱가포르	6.1	싱가포르	4.8	태국	6.0	태국	5.1	싱가포르	4.3
7	미국	3.3	미국	4.3	미국	4.5	미국	4.3	미국	4.3	미국	4.0
8	홍콩	3.3	말레이시아	3.6	말레이시아	4.0	말레이시아	3.7	말레이시아	3.0	말레이시아	3.1
9	말레이시아	3.2	인도(인디아)	2.3	인도네시아	2.3	인도(인디아)	2.2	독일	2.1	독일	2.2
10	인도(인디아)	2.6	독일	2.3	인도(인디아)	2.1	인도네시아	2.1	인도네시아	2.0	인도(인디아)	2.2

한-베트남 교역현황

- 2009년까지는 경유, 편직물이 對베트남 수출을 견인
- 2010년부터 무선통신기기부품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제품이 수출을 견인
- 2015년 현재 무선통신기기, 반도체가 수출 1,2위 품목이며 경보신호기(부품)의 수출이 대폭 증가함

[주요 년도별 對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

(금액 : 백만불 / 증가율, 비중 : % / MTI4단위 기준)

No	2008				2010				2015(1~6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총액	7804.8	35.5	100.0	총액	9652.1	35.0	100.0	총액	13712.5	27.2	100.0
1	경유	1901.7	49.0	24.4	열연강판	731.3	128.5	7.6	무선통신기기부품	2118.8	138.1	15.5
2	편직물	563.2	36.7	7.2	합성수지	674.4	35.7	7.0	집적회로반도체	1007.4	-33.9	7.4
3	합성수지	448.1	39.6	5.7	무선통신기기부품	664.2	341.3	6.9	합성수지	561.9	0.7	4.1
4	화물자동차	223.0	28.5	2.9	편직물	657.4	65.4	6.8	경보신호기	492.1	3665.1	3.6
5	승용차	221.7	26.2	2.8	경유	531.7	3.5	5.5	편직물	476.4	2.8	3.5
6	열연강판	174.2	20.3	2.2	승용차	292.6	-8.6	3.0	인쇄회로	426.3	43.5	3.1
7	기타의직물	155.1	7.1	2.0	화물자동차	285.4	-28.2	3.0	열연강판	280.8	15.2	2.1
8	자동차부품	141.9	73.3	1.8	휘발유	243.4	34.7	2.5	기타기계류	275.8	101.2	2.0
9	냉연강판	136.1	40.9	1.7	자동차부품	232.3	3.0	2.4	기타플라스틱제품	273.8	49.8	2.0
10	기타섬유제품	119.6	34.0	1.5	기타의직물	149.8	16.3	1.6	화물자동차	256.7	73.1	1.9

한-베트남 교역현황

- 2012년까지는 원유, 편직물이 주요수입품목
- 2013년부터 식물제의류가 1위 수입품목, 무선통신기기부품이 10위권 안으로 진입
- 2015년 현재 식물제의류, 무선통신기기부품이 수입 1,2위 품목이며 컴퓨터부품 수입이 대폭 증가함

[주요 년도별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금액 : 백만불 / 증가율, 비중 : % / MT14단위 기준)

No	2008				2013				2015(1~6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총액	2,037	46.4	100.0	총액	7,175	25.5	100.0	총액	4,085	17.8	100.0
1	원유	183	50.6	9.0	식물제의류	1,308	57.7	18.2	식물제의류	539	-0.3	13.2
2	무연탄	148	185.2	7.3	원유	943	13.7	13.1	무선통신기기부품	357	169.5	8.7
3	커피류	102	60.6	5.0	편직제의류	371	46.7	5.2	편직제의류	240	18.1	5.9
4	식물제의류	90	77.5	4.4	기타섬유제품	217	27.3	3.0	기타신발	140	26.2	3.4
5	기타섬유제품	75	63.9	3.7	센서	184	135.6	2.6	기타섬유제품	127	7.9	3.1
6	천연고무	69	5.1	3.4	스포츠화	180	15.1	2.5	컴퓨터부품	121	350.5	3.0
7	면사	67	97.4	3.3	무선통신기기부품	175	90.5	2.4	기타목재류	117	15.3	2.9
8	새우	66	3.4	3.2	기타신발	167	26.6	2.3	스포츠화	112	-0.4	2.7
9	기타신발	64	28.2	3.1	기타목재류	150	33.2	2.1	센서	86	1.2	2.1
10	어육	63	78	3.1	새우	124	10.3	1.7	원유	83	29.7	2.0

한-베트남 투자현황

- 2006년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현지투자 본격화
 - 2014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21억 달러(누적 투자액 약 189억 달러)
 - 베트남은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한국의 제4대 투자 대상국
- * 이에 반해 베트남의 對한국 투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

[한-베트남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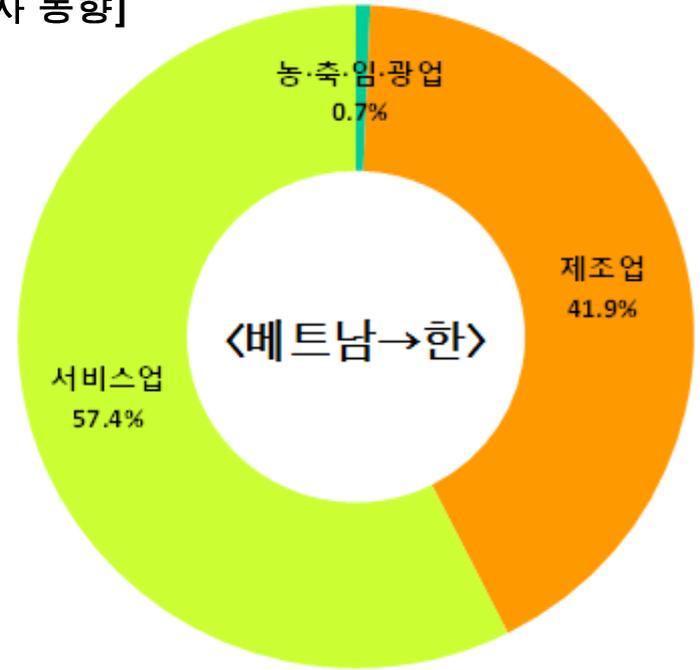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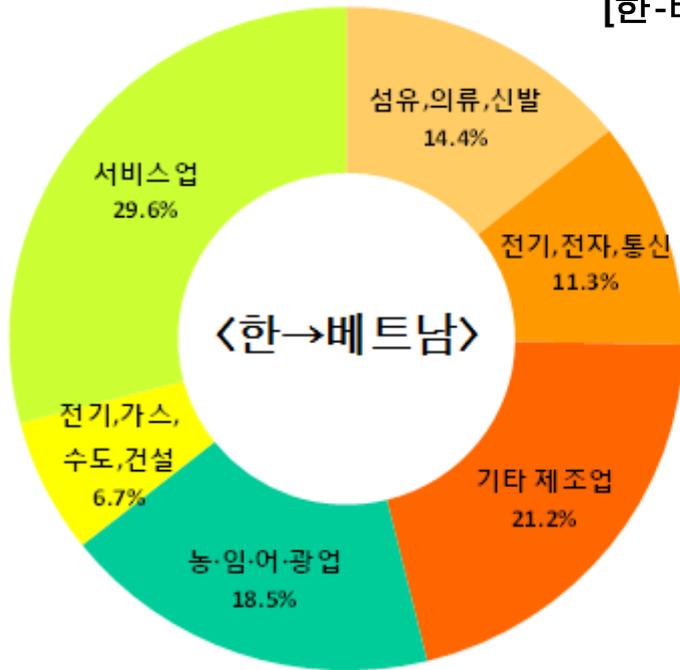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누적
한→베	금액	98.7	389.5	2158.2	1509.3	940.5	1459.7	2100.6	18908.4
	순위	11	5	4	6	10	6	4	4
베→한	금액	-	1.1	0.8	5.0	1.7	2.1	0.9	14.7
	순위	-	57	60	41	47	52	59	71

한-베트남 투자현황

- 對베트남 투자는 제조업(46.9%)이 주도
- 제조업 투자는 누적기준으로 섬유·의류산업(14.4%), 전기전자통신산업(11.3%) 순
- * 베트남의 對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7.4%)의 비중이 가장 높음

[한-베트남 업종별 투자 동향]



■ 농·임·어·광업 ■ 전기, 가스, 수도, 건설 ■ 서비스업 ■ 제조업

한-베트남 투자현황

-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14년 외투기업의 수출이 베트남 전체 수출 중 차지하는 비율은 62.6%
 - 휴대폰 등의 각종전화기/부품 수출은 99.6%, 컴퓨터/전자제품 수출은 98.9%를 차지
- * 향후에도우리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 확대로 우리기업의 對베트남 설비류, 원부자재 수출확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베트남 외투기업의 수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

	2013			2014			2015.1~3월			연평균 증가율 ('11~'14)
	금액	비중	외투기업 수출비중	금액	비중	외투기업 수출비중	금액	비중	외투기업 수출비중	
수출	1,321	100.0	61.2	1,502	100.0	62.6	363	100.0	67.6	20.1
- 각종전화기/부품	212	16.1	99.3	236	15.7	99.6	67	18.4	99.6	78.8
- 섬유/의류	179	13.6	59.5	209	13.9	59.4	49	13.4	60.0	16.9
- 컴퓨터/전자제품과 그 부분품	106	8.0	98.4	114	7.6	98.9	36	9.8	99.2	33.6

자료: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한-베트남 투자전망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 투자정책



다양한 양자,
다자간 협상을
통한 관세인하

- 법인세 25%→22%로 인하
- 외국인지분 51% 이상 투자 시 외국인투자기업 적용(기업법 완화)
- 투자금지 규정완화 및 투자허가절차 간소화, 법인인감 사용의무 폐지(투자법 완화)
- 외국인주택소유 허가(주택법 완화)

- TPP참여, 베트남-EU FTA타결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 ASEAN Economic Cooperation)출범('15.12예정)
 - 베트남은 80% 상품의 관세를 영세율로 전환, 13~15%에 해당하는 제품은 관세 인하
 -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

외투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확대



외투기업의
중간재 해외소싱
적극대응

- 베트남의 부품소재 산업은 아직 취약한 수준
- 원부자재의 국내 자체 조달이 용이하지 않음

우리 현지 진출기업 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의 외투기업의 중간재 해외소싱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 한-베트남 FTA는 개방 수준이 낮은 한-아세안FTA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 양국은 한-아세안 FTA상품 양허를 토대로 추가적인 시장을 개방
 -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3.0%p), 베트남은 92.4%(+6.2%p) 관세철폐

[한.베트남 FTA 상품 양허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

양허유형	한국 양허				베트남 양허				
	품목수	비중	對베트남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 수입액	비중	
한. 아세안 FTA	11,169	91.3	5,244.6	91.7	8,245	87.1	13,375.2	86.3	
한 - 베 트 남 F T A	즉시	91	0.7	72.3	1.3	65	0.7	179.9	1.2
	3년	216	1.8	12.9	0.2	16	0.2	296.7	1.9
	5년	134	1.1	43.1	0.8	47	0.5	19.1	0.1
	7년	7	0.1	3.0	0.1	29	0.3	16.7	0.1
	8년	-	-	-	-	6	0.1	8.1	0.1
	10년	48	0.4	40.2	0.7	106	1.1	405.6	2.6
	15년	3	0.02	0.2	0.004	3	0.03	11.2	0.1
	소계	499	4.1	171.8	3.0	272	2.9	937.3	6.1
총합계	11,668	95.4	5,416.5	94.7	8,517	89.9	14,312.5	92.4	
전체	12,232	100.0	5,717.6	100.0	9,471	100.0	15,494.1	100.0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 한-베트남 FTA는 일-베트남 EP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 한-베트남 FTA에서 베트남 측의 개방 수준은 일-베트남 EPA보다 2.3%p 높음

* 단, 일-베트남 EPA는 2009년 10월에 발효하여 이행 7년 차로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

[한.베트남, 한.아세안, 일.베트남 FTA 비교]

구분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일.베트남 EPA
추진 현황		2007.6.1. 발효 (이행 9년차)	2015.5.5. 정식서명	2009.10.1. 발효 (이행 7년차)
상품 개방	한국/일본	91.7%	94.7%(+3.0%p)	96.5%
	베트남	86.3%	92.4%(+6.1%p)	90.1%
	기준세율	2005년 MFN세율	① 2012년 MFN세율 또는 한-아세안 FTA세율 중 낮은 세율 ② 2015년 한.아세안 FTA세율	2007년 MFN세율

주1 : 상품개방 수준은 수입액 기준

주2 : 한.베트남 FTA의 기준세율은 ①의 경우 한.베트남 FTA 추가 양허 품목,

②의 경우 기존의 한.아세안 FTA 양허를 따르는 품목에 해당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FTA 타결 보도자료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수출)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HS 6단위 기준)중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추가 관세 인하 예정

자동차 부품(HS 870899)

- 한.아세안 FTA에서는 민감품목으로 분류 (수입관세 10~15%)
- 한.베트남 FTA 발효시 10~15년 내 관세가 철폐.인하 예정

트랙터부품, 연료탱크 등의 경우 15%의 관세가 10년 동안 철폐되어 이행 10년 차에 무관세 적용

새시 프레임,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클러치 페달 등의 부품 등 15%의 세율이 2021년까지 유지되며, 이후 0~5%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

* 동일 품목에 대해 일.베트남 EPA(2009.10월 발효)의 경우 0~2%, 중.아세안 FTA(2005.7월)의 경우 5%의 특혜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한.베트남 FTA의 시급한 발효가 요구

그 외에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수출 품목이 한.아세안 FTA의 일반품목군(normal track)에 분류되어 2018년에 관세인하 완료

직물(HS 590320), 편물(HS 600410, 600622)의 경우 12%의 관세는 2015년 10%로 인하되며 2018년부터 무관세 적용

* 동일 품목에 대해 중국(중.아세안 FTA 활용)의 경우 무세가 적용, 한국이 적용받는 세율보다 10%p 낮음.

** 중국의 점유율이 45.7%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은 2위(33.0%)로 2018년 무관세 적용시 점유율 확대 기대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 양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HS 6	품목명	연평균 증가율	對한국 수입액	한국 점유율	양허 내용		
					MFN	한·아세안	한·베트남
851770	전화기(휴대폰)의 부분품	47.8	2,286	39.9	0~5%	0~5% → 0%(2016년)	
854232	메모리반도체	56.1	1,205	80.5	0%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117.6	800	23.0	0%		
853400	인쇄회로	69.0	704	55.1	0%		
854239	전자집적회로의 기타	79.5	595	21.1	0%		
854370	기타의 전기기기	68.7	496	73.7	0%		
271019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석유, 역청유 함유량 70% 이상)	-1.5	339	7.2	3~10%	0~5% → 0%(2018년)	
847989	기계류의 기타	18.8	277	37.6	0%		
600410	편물(폭 30cm 초과, 탄성사 5% 이상)	14.4	274	37.6	12%	10% → 0%(2018년)	
600622	기타편물의 염색한 것	-6.8	255	43.6	12%	10% → 0%(2018년)	
760612	알루미늄의 판, 시트, 스트립(두께 0.2MM 초과)	14.8	248	67.2	0~3%	0%	
72083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두께 3MM 미만)	-7.9	242	28.6	0%		
870899	자동차 부분품의 기타 (새시 포함)	0.2	240	47.1	10~15%	민감품목 (20%유지)	10년 철폐 또는 2021년에 0~5%
271012	경질석유 및 조제품(석유, 역청유 함유량 70% 이상)		214	7.7	7~12%	초민감품목	2021년 기준세율의 20% 이상으로 인하
852851	모니터(LCD 모니터 포함)	19.6	200	71.0	무관세		
590320	방직용 직물(폴리우레탄을 침투, 도포, 피복 등)	4.2	196	28.3	12%	5% → 0%(2018년)	
621790	의류의 부분품	34.5	183	83.8	20%	10% → 0%(2018년)	
853120	LCD, LED 패널	50.7	180	89.5	0%		
854390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	61.7	179	37.3	0%		
390210	폴리프로필렌	10.0	176	29.5	0%		

주 : 연평균증가율은 2011~2014년 對세계수입액, 對한국수입액 및 점유율은 2014년 기준, 2014년 통계는 추정치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Trade Map, 베트남 양허안,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수입)

- 한국의 對베트남 수입 상위 20개 품목(HS 6자리 기준)은 모두 한.아세안 FTA의 일반품목군(normal track)으로 2012년 관세철폐가 완료됨에 따라 무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한.베트남 FTA에 따른 추가 시장 개방은 없음
- 다만, 새우(HS 030617)는 무세쿼터(TRQ) 물량을 500톤(한.아세안 FTA)에서 5년에 걸쳐 15,000톤(한.베트남 FTA)으로 확대
 - * 이행 1년(10000톤)→2년(12100톤)→3년(13310톤)→4년(14641톤)→5년(15000톤)
 - ** 한국은 베트남의 제5위 새우 수출 대상국으로 베트남 새우 수출물량의 7.9%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약 3.2억 달러(2014년 기준) 규모임

[對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 양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HS 6	품목명	연평균 증가율1) (‘11-‘14)	對베트남 수입액	베트남 점유율	양허 내용		
					MFN	한.아세안	TRQ
620193	남성 방한용 외투(인조섬유)	39.4	369	52.0	13%	0%	
851770	통신기기 부분품	21.8	239	4.1	0~8%	0%	
620293	여성 방한용 외투(인조섬유)	30.6	235	44.0	13%	0%	
030617	새우	18.82)	205	49.7	20%	0%	500톤→15000톤
621040	남성·소년용 의류(플라스틱피복, 고무가공, 기타 피복직물)	43.8	203	75.3	13%	0%	
854370	광센서 디텍터 등 기타 전기기기	10.1	198	10.9	8%	0%	
270900	석유와 역청유	8.4	192	0.2	3%	0%	
620343	남성용 바지(합성성유)	30.2	158	47.9	13%	0%	
640399	기타 가죽제 갑피의 신발	10.3	145	27.3	13%	0%	
440131	목재의 웨이스트, 스크랩 등	320.72)	123	38.1	2%	0%	
030759	문어, 낙지, 주꾸미 등	15.7	120	34.5	20%	0%	
270111	무연탄	-2.4	112	12.2	0%	0%	
640411	스포츠용 신발	33.8	99	34.6	13%	0%	
620463	여성용 바지(합성성유)	25.9	99	42.6	13%	0%	
621050	여성·소녀용 의류(플라스틱피복, 고무가공, 기타 피복직물)	40.5	98	64.0	13%	0%	
852990	송수신기용 기기의 부분품	5.2	93	12.7	8%	0%	
030499	어류의 필레와 기타 연육	0.1	93	53.0	10%	0%	
630532	신축성 있는 중간 벌크컨테이너	11.0	89	53.1	8%	0%	
440122	활엽수류 땃나무(펄프 제조용 포함)	-1.6	84	95.2	0~2%	0%	
8543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	24.5	83	23.3	8%	0%	

주1 : 연평균증가율은 2011~2014년 對세계수입액, 對베트남수입액 및 점유율은 2014년 기준

주2 : HS 2012 신설코드로 최근 2년간의 연평균증가율을 표시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한국 양허안

한-베트남 FTA 활용 수입유망품목

〈 추가 양허 품목 대상 수입 유망품목 분석 방법 〉

- 분석단위 : HS 6단위(5,205개)
- 분석대상 : 한-베트남 FTA에서 베트남의 추가 개방된 품목(272개) 중 무세 품목(65개)을 제외한 207개 품목
- 분석방법 : ① 對세계 수입 1백만 달러 이상
②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 10%이상
③ 對한국 수입 1천 달러 이상

* 베트남의 MFN 세율 정보는 최종 단위인 HS 8단위로 표기하되, HS 코드 최종단위(8단위)는 수입 통계를 입수할 수 없는 관계로 베트남의 수입 규모는 HS 6단위로 기입

한-베트남 FTA 활용 수입유망품목(1)

자동차부품

對한국 수입액 : 3.2억 달러

버스, 화물차용 타이어 (HS 40112090)

- 베트남 수입시장 규모 2억 달러 초과
- 아세안 외 일본, 중국 등 타 FTA상대국에는 관세양허를 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 10%관세 철폐시 점유율 확대 전망

차체의 기타부분품 (HS 870829)

- 15%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
- 일본, 중국 제품에 대비 가격 경쟁력 회복 예상

- * 상기 상품의 중국, 일본 세율
- HS 40112090 : (중국)10% / (일본) 관세혜택 없음
 - HS 870829 : (중국)5% / (일본) 0~14%

[자동차 부품의 한.베트남 FTA 추가 양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대세계수입	연평균증가율	한국점유율	경쟁국점유율	MFN	기준세율	양허유형
401120	버스용·화물차용 타이어(신품)	214.8	14.7	1.6	중국(47.6)			
-90	기타					10	10	10년
7009100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	15.4	19.7	0.1	중국(69.8)	15	20	10년
840820	차량 추진용 엔진	51.0	11.1	10.7	태국(44.9)			
-22	실린더용량이 2000cc초과, 3500cc이하					25	20	3년
-23	실린더용량이 3500 초과					7	5	3년
-93	기타 HS8701.10의 엔진					25	25	7년
-96	실린더용량이 3500 초과					15	15	7년
848390	전동축(트랜스미션 샤프트)	132.7	32.7	0.04	중국(77.7)			
-14	부분품(HS8711의 것)					10	10	5년
-15	부분품(87류의 다른 것)					5	5	5년
-94	기타 HS8711의 것					10	10	5년
-95	기타 87류의 다른 것					5	5	7년
870829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	131.3	17.7	5.9	일본(25.8)			
-93	진흙받이(mudguards) 등					15	15	10년
-98	승용차의 기타 부분품					15	15	10년
-99	기타 부분품					15	15	10년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64.5	25.7	1.6	네덜란드(37.1)			
-26	승용차의 기어박스					20	20	15년
-27	화물차 등의 기어박스					15	15	15년
-29	기타 기어박스					15	15	15년
870880	서스펜션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 포함)	32.4	19.8	2.2	중국(63.2)			
-17	화물차 등의 서스펜션					7	7	10년
-19	기타 서스펜션					7	7	10년
870891	방열기(라디에이터)와 그 부분품	27.8	31.8	2.2	중국(77.1)			
-17	화물차 등의 방열기					10	10	10년
-19	기타 방열기					10	10	10년
-91	방열기의 부분품(트랙터 용)					10	10	5년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62.7	14.1	5.8	일본(52.8)			
-70	화물차 및 특수용도차량 용					10	10	10년
870894	운전대와 운전박스, 그 부분품	49.3	19.0	0.5	태국(36.1)			
-99	기타					15	15	10년
871499	모터사이클,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의 부분품	57.2	16.6	0.002	중국(33.9)			
-91	핸들, 진흙받이, 반사경 등					45	45	7년
-92	체인휠, 크랭크 등					45	45	7년

한-베트남 FTA 활용 수입유망품목(2)

섬유/신발

생산단가가 중요한 산업 / 관세인하를 통한
직물과 같은 원부자재 가격 경쟁력 제고

산업용 부직포 (HS 56039400)

- 3년에 걸쳐 12%의 관세율이
균등하게 철폐, 이행 3년 차에
무세가 적용
- 반면, 중-아세안 FTA에서는
동 품목이 양허제외 대상이므로
우리 제품의 베트남 수입시장
선점 가능

합성스테인플섬유 직물 (HS 55121900)

- 연평균 증가율 38.9%
- 12% 관세가 10년 균등
철폐됨에 따라 수출 확대 기대

* 상기 상품의 중국, 일본 세율
- HS 56039400 : (중국)20% / (일본) 12%
- HS 55121900 : (중국)20% / (일본) 12%

[섬유 및 신발의 한.베트남 FTA 추가 양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대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한국 점유율	경쟁국 점유율	MFN	기준 세율	양허 유형
52081900	면직물(표백X,면85%이상.200g/m ² 이하)	14.7	44.4	2.0	중국(95.4)	12	12	3년
52083900	면직물(염색,면85%이상.200g/m ² 이하)	68.7	10.8	2.7	중국(90.1)	12	12	3년
520852	평직물(날염,면85%이상.200g/m ² 이하)	41.0	22.5	1.4	중국(89.3)			
	-10	전통적인 천연염색				12	12	5년
	-90	기타				12	12	10년
52103900	면직물(염색,면85%미만.200g/m ² 이하)	37.7	24.7	9.3	중국(73.2)	12	12	5년
52104100	평직물(다른색실,면85%미만.200g/m ² 이하)	65.8	14.7	0.4	중국(85.2)	12	12	5년
55121100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 직물(85%이상)	224.6	56.4	1.3	중국(98.1)	12	12	3년
55121900	기타의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	124.6	38.9	30.3	중국(61.5)	12	12	10년
55129900	기타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	18.5	35.5	69.9	중국(14.8)	12	12	3년
55151100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 혼방한 직물	188.7	20.1	5.3	중국(77.2)	12	12	10년
55151900	기타의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 직물	24.2	16.6	7.1	대만(40.5)	12	12	3년
55161200	염색한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직물	31.8	62.4	10.6	중국(87.4)	12	12	3년
56039200	기타 부직포(25g/m ² 초과. 70g/m ² 이하)	57.5	17.5	10.1	중국(72.8)	12	12	10년
56039400	기타 부직포(150g/m ² 초과)	91.0	13.8	22.8	중국(29.7)	12	12	3년
58041091	튜올과 망직물(침투.도포 등)	101.4	13.1	1.3	대만(63.7)	12	12	5년
64062000	신발의 부분품(바깥바닥 및 뒷굽)	201.4	15.3	4.5	중국(87.6)	30	30	5년

한-베트남 FTA 활용 수입유망품목(3)

생활가전을 포함한 전자기기 및 기계류

믹서기(녹즙기 포함) (HS 85094000)

- 25%의 관세 5년간 균등 철폐

전기밥솥 (HS 85166010)

- 20% 관세가 10년 간 균등 철폐

스위치 안테나 (HS 853650) (HS 852910)

- 가전제품 부품으로 사용
- 현재 우리나라가 점유율 1위
- 10~15%의 관세가 5년 내 철폐
- 일본, 중국과 관세면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상기 상품의 중국, 일본 세율

- HS 85094000 : (중국)10% / (일본) 20~22.5%
- HS 853650 : (중국)0~10% / (일본) 0~7%
- HS 85166010 : (중국)0% / (일본) 20~22.5%
- HS 852910 : (중국)10% / (일본) 4%

[전자기기 및 기계류의 한.베트남 FTA 추가 양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대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한국 점유율	경쟁국 점유율	MFN	기준 세율	양허 유형
841810	냉장고·냉동고	102.0	17.9	3.8	태국(78.6)			
-10	가정용					25	25	10년
84502000	세탁기(용량이 10kg 초과하는 것)	33.0	57.1	14.3	태국(70.9)	25	25	10년
85094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추출기	33.0	12.3	1.9	중국(47.8)	25	25	5년
851660	오븐, 쿠키, 조리판, 로스터 등	146.8	21.0	3.5	중국(60.4)			
-10	전기밥솥					20	20	10년
8529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부분품	88.7	23.4	60.5	중국(20.4)			
-29	접시 안테나(텔레비전용 제외)					10	10	5년
-30	텔레비전·라디오 수신용					15	15	5년
-40	안테나 필터·세퍼레이터					0	10	5년
853650	기타 전기회로의 스위치	94.9	23.0	35.5	일본(16.5)			
-32	선풍기나 라디오장치용 스위치					0	15	5년
-33	스토브, 전자렌지 등의 스위치(16A 미만)					15	15	5년
-39	스토브, 전자렌지 등의 스위치					15	15	5년
-40	밥솥·토스터기용의 마이크로형 스위치					15	15	5년
-61	가정용 500V 미만 기기의 스위치(16A 미만)					15	15	5년
-69	기타의 가정용 500V 미만 기기의 스위치					15	15	5년
-92	전기팬 용 스위치					15	15	5년
-95	전기모터·휴즈의 전원용 스위치					15	15	5년
-99	기타 스위치					10	10	10년

한-베트남 FTA 원산지 규정 및 절차 개선

- 기존 한.아세안 FTA가 대부분의 품목에서 공통기준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한-베트남 FTA는 개별기준을 두어 품목별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노력함
- 한.아세안 FTA 대비 5205개 품목(HS 6단위 기준) 가운데 417개 품목의 원산지기준이 변경 - 362개 품목에 대해서 완화, 31개 품목에 대해서는 강화

완화

- 완화된 기준의 2/3가 세번변경기준에서 나타남
- 대부분 기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CTH→CTSH)으로 완화되는 형태



강화

- 주로 농수산물식품에서 관찰됨
 - * 일부 수출 유망 농수산물식품에 대해서는 완화된 품목도 있음
- 기존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기준(CTH→CC)으로 바꿔 역내산 인정 요건을 강화
-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의 선택 기준을 세번변경기준으로 단일화(CTHorRVC→CTH)하여 원산지 충족 기회 감소

한-베트남 FTA 원산지 규정 및 절차 개선

섬유

- 55개 품목에 대해 예외규정 및 재단, 봉제 등의 가공공정기준 삭제
- 원산지 충족 뿐 아니라 제조공정도 등 입증서류 간소화에 따른 비용 역시 감소

기계류

- 가장 큰 변화는 냉장고, 세탁기 등 기계류에서 나타남
- 대부분이 4단위 세번변경에서 6단위 세번변경으로 완화

농수산물 식품

- 對베트남 수출이 증가한 품목에 대해서 한.아세안 FTA 대비 원산지충족 요건을 완화
- 對베트남 수출의 연평균증가율이 101.2%인 로커스트두에서 얻은 점질물(HS 130232)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으로 완화 (역외산 로커스트두 사용 가능)
 - 對베트남 수출규모 16백만 달러의 기타 조제식료품(HS 210690)의 경우 기존의 부가가치 40% 충족에서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부가가치 40%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원산지 충족 용이

기타

- 원산지증명서식을 Form KV로 특정
-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을 기존 200달러(한-아세안FTA기준)에서 600달러 이하로 상향하여 특혜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도모
- 검증요청 회신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시켜 업계의 사후검증 리스크 완화

한-베트남 FTA 원산지 규정 및 절차 개선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

(단위 : 개)

	기준 완화						기준 강화	기타	합계
	완전생산 완화	세번변경 완화	선택 기준	공정기준 삭제	예외규정 삭제	소계			
농수산물식품	15	-	15	-	20	50	22	16	88
섬유/의류(신발 포함)	-	-	1	55	-	56	-	-	56
광물/금속	1	14	11	-	-	26	1	1	28
목재	-	0	3	-	-	3	-	-	3
기계	-	144	1	-	-	145	-	-	145
전기기기	-	71	1	-	-	72	5	-	77
기타 제조품	-	9	-	-	-	9	3	-	12
수송기기	-	0	1	-	-	1	-	7	8
합계	16	238	33	55	20	362	31	24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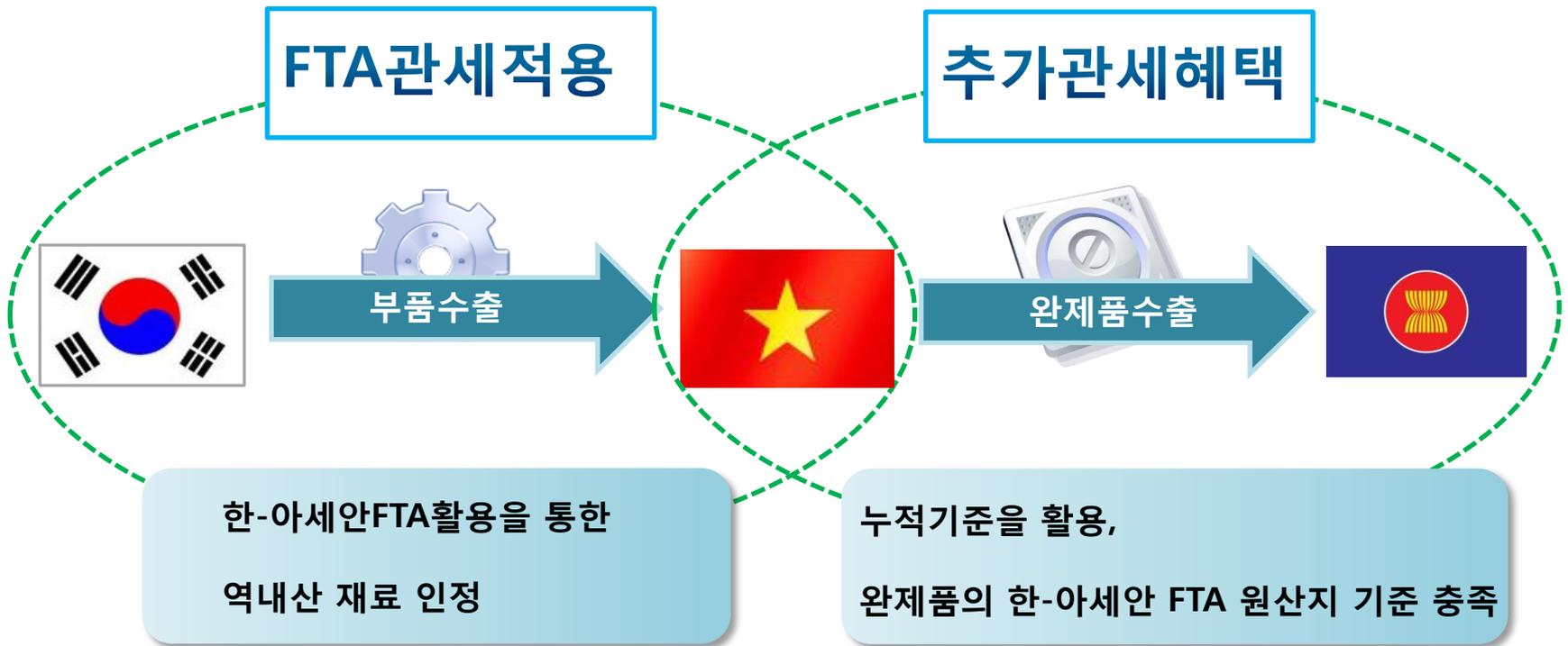
한-베트남 FTA 원산지규정 및 절차 개선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규정 비교(요약)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발급방식		기관발급(통일서식, Form AK)	기관발급(통일서식, Form KV)
제출면제		본선인도가격조건(FOB)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제	본선인도가격조건(FOB) 6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제
사후검 증	검증방식	수출국 세관/간접검증 (예외적인 경우에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	수출국 세관/간접검증 (예외적인 경우에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
	검증요청 회신기간	수출국 세관은 2개월 내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	수출국 세관은 6개월 내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
	사후검증 소요기간	6개월 이내 완료	10개월 이내 완료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3년 이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 이상

FTA 활용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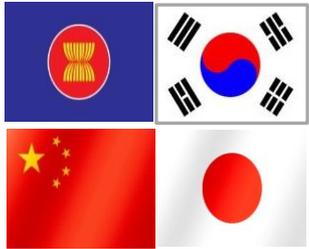
[한-ASEAN FTA 활용 모델]



FTA 활용 Tip

[세번변경기준 활용 모델]

1차 FTA관세적용



2차 FTA관세적용



부품조달 시 FTA활용,
관세인하를 통한 원가절감

FTA협정국 수출시, 세번변경기준 활용을
통한 완제품의 추가적인 관세인하



THANK YOU